

'젊은 도시 무안'...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주력'

일자리 선순환 협업시스템 구축...5대 분야 체계적 추진 고용률 65%·일자리 1만2천267개 달성 목표 계획 공시

무안군이 '젊은도시 경제수도 무안, 모두 더 잘사는 상생 무안'이라는 비전으로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9일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2022년 말 기준 9만6000명이며, 평균 연령 또

한 43세로 전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다. 무안군은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 전담 부서인 일자리팀을 중심으로 '일자리 선순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전략산업 분야 ▲청년 분야

▲농수산업 분야 ▲계층 맞춤형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등 5대 분야로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안군은 고용률(15~64세) 65%, 취업자 수 4만9천명,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1만2천267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 2024년도 일자리 대책의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시했다. 또한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는 1만2천 267개 창출하되, 단기적·계절적 일자리를 지양하고 정규 일자리를 확대하며 직

업훈련, 취업·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핵심 추진전략으로는 계층 맞춤형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창직 일자리 발굴, 지역고용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지역 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으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부문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하길 희망하는 어르신, 취약계층, 저소득층, 실업에 따른 구직자 등에게 지

역특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13개 사업에 438억원을 투입해 연간 4천814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취·창업 지원사업은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자금 지원, 창업 교육, 창업 고도화, 취업 준비 등 취업·창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17개 사업에 2억여원을 지원해 연간 629명에게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무안군은 5개 세부 실천 과제를 수립해 50개 사업에 1천256억원을 지원해 9

천732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민선 8기 2차년도인 2024년 지역 일자리 공시제 세부계획은 양질의 일자리에 비중을 높이며, 무안군 근로자들이 각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역량 강화와 유망기업의 육성을 중점으로 계획했다"며 "청년이 모여들고 근로자들이 행복한 무안, 비장하는 일자리로 생동하는 행복무안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기자



명현관(왼쪽에서 네번째) 해남군수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국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 참석했다. <해남군 제공>

'RE100전환' 해남군, 투자유치 활동 '분주'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서 솔라시도 산단 투자 설명

해남군이 RE100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재)기업 재생에너지재단(CREF)의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에 참가해 해남군 재생에너지 현황에 대한 브리핑과 B2B(기업간 거래) 현장에 참여했다. (재)기업재생에너지재단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

경영자총협회가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각종 정책 지원과 함께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교류행사를 연계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국제재생에너지 인증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삼성전자,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네이마 등 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선언한 한국 RE100 멤버스 기업들과 한국 중부발전, 보성산업, 피브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공급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B2B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해남군은 기초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포럼에 참석해 개막행사 후 기조발표로 솔라시도 RE100 산업벨트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진행해 이목을 끌었다. 발표에서는 '해남, 재생에너지 미래를 비전다'를 주제로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RE100 산단과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 대해 설명하고,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각종 개발사업 현황을 알렸다. 해남군은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조성

66만㎡(20만평)과 화원산단 해상풍력 20만㎡(6만평) 등 총 86만㎡(26만평)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해 기업 이전·투자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한국의 기업들도 속속 RE100 이행을 선언하고 있지만 아직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앞선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만한 세계적인 규모의 재생에너지 매카로 육성해 투자유치와 기업 활동의 확실한 동반자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소통 행보 '눈길'

임원 간담회서 정주여건 개선 등 협력 논의

나주시와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파트너십 강화·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이은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주시는 9일 "지난 2월 실무단과 소통을 가진 데 이어 3월 '기관장 나주알기' 행사 후 최근 간부·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빛가람 만개한 한수제의 수려한 풍광과 숲속 힐링공간을 공유

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나주숲체원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안상현 나주 부시장을 비롯해 한전,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사학연금공단 등 9개 공공기관 간부 임원

이 참석했다. 나주시는 이날 지역물품 우선 구매와 지역 상생 이용 협조,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협력 등을 요청했다. 오진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본부장은 "기관 특성을 살려 '디지털 안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무 부서와 논의의 중이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호 한국전력공사 노사협력처장은 "현장 이전 10년이 지나면서 정주여건이 많이 개선됐음을 느낀다"며 "혁신도시 내 가장 큰 규모의 공공기관으

로써 함께 역할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상현 부시장은 "전국 혁신도시 중 나주시가 가장 완성적인 도시를 만들고 있다"며 "나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개설, 기회발전특구, 복합혁신센터 및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분야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 책임제를 통해 기관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 모델을 발굴하는 등 공공기관과 함께 명품 나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정준환기자

영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행렬...1억 돌파

영암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1억 원 모금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 기간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잇따른 것으로 이는 모금 성과에 한 몫을 했다. 축제에서는 박찬모 재경영암군항우회장을 비롯한 오형근 재경영암군항우회장, 오남호 영암한국병원장이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또한 임정빈 영암군농협지부장은 농협재경영암군항우회를, 서윤중 NH농협 손해보험 부장은 농협재경영암군항우회를 대표해 행렬에 동참했다.



영암군은 최근 '2024 영암왕인문화축제' 기간에 잇따라 고향사랑기부금 행렬로 모금액 1억 원을 돌파했다. <영암군 제공>

자매결연도시인 경남 산청군도 2년 연속 상호기부금을 약속하고, 각 지자체 250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2천500만원 씩을 교차 기부하기로 했다. 영암군이 올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기부자 662건으로 94%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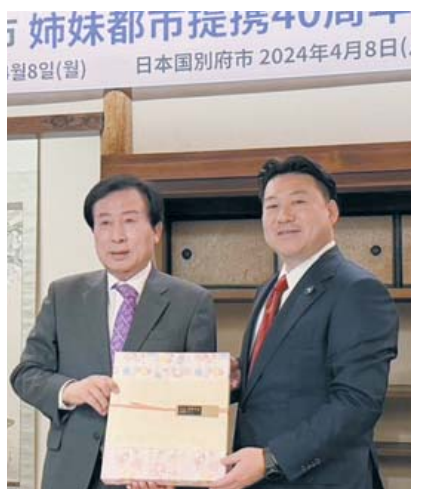
차지하고, 100만원 이상 기부도 12건 3천300만원에 달한다. 연명별 기부자는 40~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기부자 중 64%를 차지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자 예우방안을 마련하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소중한 기부금이 뜻 깊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기자

목포시, 일본 벳푸시서 김 수출 홍보

자매결연 40주년 기념...교류사업 재개

목포시가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벳푸시를 방문해 10년만에 교류를 재개하며 목포 김 수출 홍보에 나섰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자매도시인 일본 오이타현 벳푸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자매도시인 벳푸시가 '시정 100주년 기념식'에 목포시를 초청해 추진됐다. 또한 방문기간 동안 양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 40주년 기념식이 개최됨에 따라 시는 이를 계기로 10년 만에 양 도시의 교류를 재개하며 목포 김 수출 홍보에 나섰다. 자매결연 40주년 기념식은 박홍률 목포시장과 나가노 야스히로 벳푸시장의 환영·답례 인사로 시작됐으며, 이어진 환담에서 ▲경제·관광·문화예술분야 교류재개 및 확대 ▲지역경제 동반성장 추구 ▲관광인프라 구축 협력 ▲대학교 간 유학·인턴십 등 교류방안 소통 ▲민간 교류활동 추진 등을 각 시장들이 약속했다. <사진> 또한 양 도시는 이번 기념식을 기반으로 글로벌 과제에 관한 협력, 수출상



목포시 박홍률 시장(왼쪽)과 일본 벳푸시 나가노 야스히로 시장(오른쪽)이 기념식에서 기념품을 교환하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품 진출, 관광객 유치, 미래세대 간 취업과 문화예술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경험과 정책을 긴밀히 공유하기로 했다. 박홍률 시장은 "국제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양 도시로서 협력 여지가 많은 만큼, 중단됐던 교류사업 복원에 이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새로운 협력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영광,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 모델 발굴

수익 주민 공유 등 용역 착수보고회

영광군은 "최근 부군수, 군의원, 실과소장, 관련 읍면장, 수협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출자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발전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은 발전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영광군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추진 중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추세 변화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개발해 군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용역은 대규모(100MW 이상) 사업의 참여 범위를 읍면동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강종만 군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앞으로 조성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정 부자도시 영광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완도 전복, 내일까지 전국 이마트서 50% 할인

완도군은 9일 "11일까지 전국 이마트 90여개 지점에서 '완도 전복 최대 50% 할인 판촉전'을 연다"고 밝혔다. 완도 전복은 청정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 등을 먹고 자라 각종 비타민과 철분, 칼슘, 칼륨, 단백질 등이 풍부해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며,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남녀노소를 위한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4-5월은 품질 좋은 전복 홍수 출하로 복날이나 명절에 비해 수요가 적어 가격이 하락해 전복 생산 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군은 전복 소비 촉진 활동에 주력하

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 대전'에 물류버를 지원하고, 판매 가격의 할인 폭을 높여 이마트와 함께 판촉전을 진행하게 됐다. 최근 김현철 완도부군수와 최재순 이마트 용산점장, 이승철 (주)행복한전복 대표가 이마트 용산점에서 판촉전 연하고 부드러운 남녀노소를 위한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4-5월은 품질 좋은 전복 홍수 출하로 복날이나 명절에 비해 수요가 적어 가격이 하락해 전복 생산 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군은 전복 소비 촉진 활동에 주력하